

문화예술전문매거진 <THE MOVE>와 함께 하는

이달의 추천 공연 5

5월! 오페라와 음악이 춤추는 예술축제의 달

1 더 쉽고 더 친숙하게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이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6개 오페라 단체가 참여하며, 대극장인 오페라극장에서는 글로리아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호남오페라단의 <달하, 비취시오라>, 노블아트오페라단의 <나비부인>과 국립오페라단 <바그너 갈라>가 공연되고, 자유소극장에서는 더뮤즈오페라단의 <배비장전>과 선이오페라앙상블의 <코지 판 투테 - 여자는 다 그래>가 소극장 맞춤형 오페라로 선보인다. 야외무대로는 신세계스퀘어에서 축제의 하이라이트 무대인 <오페라 갈라콘서트>가 작년에 이어 페스티벌 미리보기 형식으로 꾸며진다.

우리의 삶을 그리는 오페라 이야기!

대부분의 오페라는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오페라극장 작품 <사랑의 묘약>, <달하, 비취시오라>, <나비부인> 역시 사랑을 말하지만 각기 다른 결말을 맞이한다. <사랑의 묘약>의 순수한 시골청년 네모리노는 지주의 딸 아디나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묘약을 마시고, 자신의 자유까지 희생하려 하지만 바보스러운 순정과 진심으로 인해 결국 아디나와의 사랑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사랑의 결실을 맺는 대표적인 로맨틱 코믹 작품인 <사랑의 묘약>과는 대조적으로, <달하, 비취시오라>와 <나비부인>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여인의 이야기 '정읍사'를 토대로 한 창작 오페라 <달하, 비취시오라>, 이별보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비부인>은 사랑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비극 오페라이다. 사랑에 웃고, 우는, 우리의 삶을 그리는 오페라를 열 번째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서 만나보자.

2019.5.17-6.09 예술의 전당

2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윌리엄 텔> 오페라 <윌리엄 텔 Guillaume Tell> 국내 초연

국립오페라단, 스위스 투쟁의 역사로 3.1운동의 정신 되살리다!

활쏘기의 명수 윌리엄 텔이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놓고 쏘게 되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스위스 저항의 상징으로 민족적 영웅에 대한 전설이 오페라로 무대에 올려진다. 1207년 경,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아래 있었던 스위스의 혁명을 소재로, 활의 명인으로 애국자인 윌리엄 텔 부자와 총독 게슬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의 마지막 오페라 <기욤 텔(윌리엄 텔)>은 6시간이나 되는 공연 시간 때문에 오늘날 거의 공연되지 않고 다만 서곡이 연주회의 주요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오리지널은 5막이었으나 나중에 3막을 삭제하고 4막과 5막을 합해 3막이 되었다. 프리드리히 실러의 희곡을 빅토르조세프 에티엔 드 주이(Victor-Joseph Étienne de Jouy) 등이 합작해 대본으로 만들었고, 1829년 8월 3일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됐다. (프랑스어로 된 오페라로 불어 발음으로 기욤 텔이라고 읽는다.) 14세기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스위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던 인물 윌리엄 텔을 다루는 내용으로 올해 대한민국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립오페라단에서 국내 초연한다. 100년 전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저항하던 3.1운동의 정신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은, 1829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약 190여 년 만에 드디어 국내 무대에 오른다. 서곡은 다섯 개의 첼로가 서로 다른 솔로를 연주하면서 시작되고, 오페라의 내용은 알려진 윌리엄 텔 이야기와 약간 다른데, 어떻게 전개될지 무대에서 만나보자.

역사적인 한국 초연을 위해 세계 무대에서 활



Staatsoper Hamburg <Guillaume Tell> ©Brinkhoff/Mögenburg

약 중인 테너 강요셉과 김효종이 이번 작품의 주역 아놀드 역을 맡는다. 이번 무대의 지휘는 2018년 국립오페라단 <마농>으로 호평을 받은 제바스티안 랑 레싱이 맡는다. 연출은 2012년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와 2017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발퀴레> 연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여성 연출가 베라 네미로바가 맡고, 무대와 의상 디자인은 옌스 킬리안이 담당한다. 역사적인 <윌리엄 텔> 국내 초연 무대에는 주역 배우를 비롯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무용단, 연기자 등 총 250여 명의 출연진이 한 무대에 올라 전율의 대작을 선사한다.

5.10-12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3 세계 걸작오페라와 한국 창작오페라의 대향연 서울오페라앙상블 창단 25주년의 역사! <2019 한국오페라 갈라페스티벌>

오페라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고자 노력해온 서울오페라앙상블이 창단 25주년을 기념해 정상급 성악기들과 함께 갈라 페스티벌을 펼친다. 지난 25년 동안 끊임없는 열정으로 무대에 올린 세계 걸작오페라와 한국 창작오페라의 대향연을 파노라마처럼 엮었다. 한국오페라의 한 시대사를 가름하며 다양한 작품으로 한국오페라의 세계화를 향해 도약하는 서울오페라앙상블의 지난 역사

와 현재, 미래의 무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지난 25년의 수많은 작품을 담기 위해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꾸몄지만, 마치 오페라무대처럼 구성해 3막의 공연으로 전개된다. ‘제1막-비바, 모차르트’에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작품을, ‘제1막 2장-프랑스 오페라로의 초대’에는 드뷔시, 마스네 그리고 비제의 오페라를, 제2막-내 나라, 내 겨레’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송을, ‘제3막-이태리 오페라의 향연’에서는 글루크, 로시니, 베르디, 푸치니의 오페라를 담았다. 소프라노 김은미, 김주연, 박상영, 박유리, 박하나, 박혜진, 배혜련,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윤성희, 이종은 이효진, 임수연, 정꽃님, 정시영, 김난희, 김순희, 테너 김중일, 박기천, 석승권, 엄성화, 유태근, 이찬구, 정신권, 차문수, 바리톤 최성수, 박경준, 박정섭, 장철, 최정훈, 베이스 김요한, 장철유 등이 참여한다. 예술감독 장수동, 지휘 김덕기, 연출 장누리, 음악감독 장철, 해설 윤정인, 음악코치 김보미, 우수현, 연주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맡았다.

5.25 예술의전당 콘서트를

4 ‘Connecting Roads: 잇다’ 제18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는 2019년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다. ‘Connecting Roads: 잇다’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국내 음악극과 폴란드, 프랑스, 미국, 덴마크 등의 해외 음악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음악극축제의 개막작으로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극단 비우로 포드로지(Biuro Podróży)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맥베스를 대형야외극으로 풀어낸 작품 <맥베스>가 선정되었다. 불과 음악, 연기가 조화된 최대의 볼거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야외극으로, 2009년 의정부음악극축제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어 많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제의 마지막을 책임질 폐막작으로는 제프소벨(Geoff Sobelle)의 <Home>이 선정되었다. 제프소벨은 미술사로 커리어를 시작하여 배우, 연출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피지컬 씬어터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 의정부음악극축제에 그의 작품이 처음으로 소개된다. 제프소벨은 <Flesh and Blood & Fish and Fowl>, <The Object Lesson>등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쾌한 해석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이번 <Home>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주택에 대한 딜레마와 젠트리피케이션, 이주에 대한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큰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 참가작으로는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보여주는 두 작품 <Backbone>, <백설공주(또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통해 동시대 음악극의 현주소를 제시한다. 또,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 양국을 대표하는 공연 단체를 선정하여 <Moving Stories>를 공동 제작하여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 세계 초연한다. 국내초창작으로는 브러쉬씨어터의 <리틀뮤지션>, 학전의 <지하철1호선>를 선정했다.

5.10-19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시청 앞 광장

5 “음악과 미식 Music & Gastronomy” 제14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

“음악을 통한 우정”이라는 모토를 걸고 2006년부터 매년 서울의 봄을 실내악 음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이하 SSF)가 올해로 어느덧 14회를 맞이한다. 각기 다른 주제로 음악의 향연이 펼쳐지며, 4월 28일은 오직 SSF에서만 즐길 수 있는 ‘살롱콘서트’가 윤보선 고택에서 열리며, 매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가족음악회’가 올해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예술감독 강동석을 비롯하여 조영창, 양성원, 김영호, 김상진 등 SSF의 대표 아티스트들과 함께 올해는 특별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당 타이 손이 함께한다. 그 밖에도 하피스트 이자벨 모레티, 바이올리니스트 파벨 베르니코프, 스베틀라나 마카로바 등 초특급 해외 초청 아티스트와 이경선, 조진주, 임효선, 문지영, 최나경, 노부스 콰르텟, 채재일 등이 멋진 하모니로 ‘맛있는’ 공연을 선사한다.

개막공연에서는 스칸디나비아의 뷔페식인 ‘스모르가스보드(Smorgasbord)’를 주제로 펼쳐진다. 전형적으로 5개의 코스로 이뤄지는 스모르가스보드 특성에 맞춰 5개의 작품으로 구성하고 마지막 곡은 스칸디나비아 작곡가인 스벤젠의 작품으로 마무리한다. ‘Meat Dish’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둘째날은 메인 코스의 목직한 울림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넷째날에는 ‘Starter’라는 소제목에 맞춰 식전 입맛을 돋우는 에피타이저 같이 짭고 가벼운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Seafood’라는 주제의 28일 공연에는 드뷔시의 ‘바다’ ‘조각 배로’를 비롯하여 해군 사령관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인 크라스의 작품 등 바다와 물을 연상케 하는 곡들을 모았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매력을 한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Fusion’, 빌라-로보스, 하차투리안, 알베니즈 등 이국적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Exotic Flavor’,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각 나라의 강렬한 민속적 색채를 느낄 수 있는 ‘Ethnic Cuisine’외에도 매년 큰 사랑을 받는 ‘가족음악회’와 고즈넉한 윤보선 고택에서 즐기는 ‘살롱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짜임새 있는 공연을 구성했다.

4.23-5.4 롯데콘서트홀, 세종체임버홀,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윤보선 고택,
한국가톨릭문화원아트센터(실비아홀)



고시계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예술전문지
MOVE 와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공연 및 더무브 구독 문의: 02.523.7356